

# 冠巖 洪敬謨의 中國文人과의 交遊와 그 樣相

- 2차 연행을 중심으로 -

이 군 선\*

## 目 次

1. 서론
2. 2차 연행, 기쁨과 슬픔
3. 2차 연행에서 만난 인물과 그 교유 양상
4. 결론

## 1. 서론

冠巖 洪敬謨(1774~1851)는 1830년 1차 연행을 통하여 紀樹葵, 陳登之, 陸慶頤 등 중국 문인들과 교유를 맺고 돌아왔다. 관암의 1차 연행에 관해 서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sup>1)</sup> 연행을 마친 후 관암은 항상 이들을 그리워하여 중국으로 서신과 예물을 보내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런 바램 때문이었을까? 홍경모에게 다시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833년 11월 10일 進賀兼謝恩正使로 낙점을 받은 것이다. 관암은 1834년 2월 8일에 서울을 출발한다. 이 사행의 정사는 홍

---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1)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중국문인과의 교유와 그 의의」, 『동방한문학』23, 동방한문학회, 2002, 251~272면에서 먼저 관암이 1차 연행에서 만난 인물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교유양상에 대하여 학문적인 교류, 서화 및 예술품의 증정, 서적과 시문의 교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교유의 의의를 조부인 이계의 계승과 海外知己의 갈구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경모이고 副使는 李光正이며 書狀官은 金鼎集(1808~1859)이다. 이때 아들 翼周가 護從하게 된다. 2차 연행은 관암에게 있어 자신의 염원이었던 중국 인사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아들이 玉河館에서 폭사함으로 인해 슬픔을 안고 돌아오는 연행이기도 하였다.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교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노력에서 관암의 중국 문인과의 교유에 대한 열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관암이 2차 연행에서 만난 인물들과 교유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관암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관암은 다른 사람에 비해 유달리 중국인사와의 교유에 대하여 열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유의 실상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2차 연행에서 만난 인물은 紀樹樊 외에 帥方蔚, 卓秉恬, 卓秉愷, 陳瑾光, 葉志誥 등이다.

## 2. 2차 연행, 기쁨과 슬픔

관암은 2차 연행이 결정된 후 꿈에 부풀게 된다. 그것은 바로 1차 연행에서 만났던 중국 인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리워하던 벗들인가? 관암은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에게 나아가 인사하고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마음껏 풀고 싶었다.

저는 을(1834) 정월에 또 진하정사의 임무에 응하여 2월 12일에 출발하여 용만에 이르러 작년 겨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조공사를 만나 귀하의 편지를 길 가운데서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세형의 거동이 편안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다행스럽게 여겨 진실로 좋은 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둬 온 것은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즉시 문에 나아가 수년 간의 얽힌

회포를 풀고자 하였습니다.<sup>2)</sup>

관암이 북경에 도착하여 紀樹麤에게 보낸 편지이다. 다시 중국에 오게 된 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만큼 관암에게 있어 이들을 생각하는 정은 깊고 간절한 것이었다. 이들은 1차 여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신의 왕래 편에 서로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紀樹麤 역시 관암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 이전에 맺었던 世交를 환기시킨 다음,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이라고 하였다. 이 때 이들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기에, 언제 한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심하며 서로 그리워하였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신묘년(1830) 신춘에 형이 조공 사신의 임무를 받들고 북경에 왔을 때 제가 만나 뵈고 아울러 삼대의 신교로 대대로 내려오던 우호를 닦고 술을 마시며 청담을 나누고 노래에 화답하며 수창할 적엔 얼마나 상쾌했던지요. 일찍이 그러한 때가 얼마였는지. 형과 헤어진 뒤 손가락을 꼽아보니 4년이 지났군요. 고인들이 비록 ‘하늘 끝도 이웃과 같다’는 말을 하였지만 훗날 만날 기약이 아득하여 꼭 다시 만난다고 기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저와 형은 모두 耆年에 가깝고 저는 또 병이 많아 이로부터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도 또한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삼월 중순부터 저는 병으로 20여 일을 누워 있었는데 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 날래게 와서 형이 현재 정사의 임무를 받들고 다시 경사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듣고 기운이 솟구쳐 일어나 펼쩍 뛰며 기뻐하면서 이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sup>3)</sup>

- 2) 『外史續編』5, 「拜啓茂林世兄 甲午四月」; 敬謨於本年正月 又應進賀正使之任 仲春旬二起身 行到龍灣 昨冬貢使始回 伏奉惠音於路中 審知吾世兄動止安健 欣幸萬萬如獲良晤 弟之今者重來 可謂天送之緣 擬於下馬後 卽地造門 以叙數年縈纒之懷
- 3) 『外史續編』5, 「謹覆冠巖世兄」; 憶自辛卯新春 我世兄奉貢使入都 弟得識荊 並修三代新交世好 飲酒清談 賡歌酬唱 何快如之 曾幾何時 與吾兄分袂後 彈指四易裘葛矣 古人雖有天涯比鄰之句 而後會茫茫 期難豫必 嗚弟與兄均近耆年 弟又復多病 從此不得相晤 亦未可知 自三月中旬 弟臥病已廿餘日 昨尊使賁臨據云 吾兄現奉正使之任 重來京師 弟聞之 不禁鑿然興而躍然喜 以爲真是天作之緣

한편 관암은 陳延恩에게도 편지를 띄워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하지만 진연은은 이미 松江의 通判으로 나아가 만나지 못하게 된다. 대신 진연은의 族祖父인 玉士 陳瑾光과 교류하게 된다. 물론 진연은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하는 것도 陳瑾光이다.

지난 겨울 연공 편에 편지를 보내어 신성 서관에 전하도록 하였는데 사신이 돌아오기도 전에 사명에 응하여 봉성에 이르러 길에서 공사를 만나 답장을 받아보니 바로 옥사선생이 대신 받고 답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성에 들어와서 옥사선생과 친분을 맺었는데 관대함을 보이고 이끌어 주시는 말에 정의가 가득하여 다시 그대를 대하는 듯하였습니다. 화제가 대부분 그대에게 있었으니 그때에 그대는 반드시 귀가 가려운 병이 생겨 가려움을 금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sup>4)</sup>

관암은 陳瑾光을 만나 진연은과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다. 이 말에는 관암이 진연은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진연은과는 이후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 서신의 왕래도 단 한차례로 끝을 맺고 있다. 한편 陸慶頤와는 육경이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시골로 내려간 이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

관암은 자신이 1차 여행에서 교류했던 인물들을 다시 만나고 이들을 통하여 교류관계를 확대하려는 생각으로 기쁨에 넘쳐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세상에서 다시 겪지 못할 슬픔을 안고 돌아오게 된다. 다름아닌 관암을 護從하던 아들 翼周가 玉河館에서 突然死한 것이다.<sup>5)</sup> 이때의 슬픔으

4) 『外史續編』5, 「寄松江通判陳登之延恩」; 前冬年貢使 修付尺素 使傳于新城西館 使未回而旋膺使命 行到鳳城 遇貢使於路中 接得小札 乃玉士先生代收之答也 及入都訂交於玉士先生 先生賜款導言 情意藹然 如復對足下 而話多在足下 那時 足下定生耳癢而不禁也.

5) 『外史續編』7, 「祭亡兒縣監文」; 維歲甲午二月 余以進賀正使 受命如燕 兒子翼周 爲護父行 願從之 余許以偕作 粵三月初七 渡鴨江 涉遼野 穿山海關 行三十有一日 入燕京 舍于玉河館 卽四月初七日也 翼周夕飧如常 與人對話 話未了 而忽爲氣窒 仍未

로 인하여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문인과 교류하려 했던 것도 지연되고 조부인 耳溪의 燕行詩에 화답하던 「廣和燕雲續詠詩韻」의 작업도 중단되게 된다.<sup>6)</sup>

이 달(1834년 4월) 초칠 일 오시에 회동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들도 蘇子由의 大觀의 마음을 이루고자 저를 따라 왔는데 그 날 저녁 아무런 병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독자로 형제가 그림자를 따르듯이 하며 이생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지금 만리 타향에서 이러한 이전에 거의 없었던 지독한 슬픔을 당하였으니 마음과 혼백이 진동하고 놀라 슬픔과 원통함이 가슴을 메워 위엄을 상실한 나머지 병들어 늙게 되었습니다.<sup>7)</sup>

만리 타향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어떠했을까? 관암은 이때의 슬픔을 「祭亡兒縣監文」에 기술하고 있다. 「제망아현감문」은 약 2400여 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관암이 연행할 적에 따라온 사실부터 자식을 잃은 슬픔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관암은 아들의 죽음을 曾祖로부터 자기 아들에게까지 5대에 백 년도 안되어 세 명이나 요절하는 슬픔으로 천고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한다.<sup>8)</sup>

#### 回甦

- 6) 『外史續編』2, 「廣和燕雲續詠詩韻序」; 我王考文獻公之以副价使燕也 在正宗壬寅 而有燕雲紀行詩一編 以正使而再赴也 在甲寅 而有燕雲續詠一編 凡前後二編也 小子於庚寅副价之行 以未能廣和紀行詩爲恨 甲午又以正使再赴 如王考甲寅之行 謹取續詠詩篇 自渡江詩爲始 逐題廣韻 而我境之關西名亭之紗籠數篇 亦有敬次者 此是王考按節時所揭也 並錄爲別編 先書王考原韻 下附廣詩 噫 府君之奉使命再焉 而小子亦再焉 世掌行人之職 屢膺皇華之役 先休是繩 恩光溢路 以小子不肖寡學 幸玷科名 不墜家聲 乃於五十餘年之間 宣力王事 祖孫相繼 而于是役也 使名相同 行邁亦同 榮莫大焉 事不偶然 自夫渡江而西也 履中華之舊域 喜前轍之復踏 不揆僭妄 隨境廣韻 每一篇成 非徒星淵之可以立判 殆若日月之不得以踰也 及入燕京 小子有西河之痛 不復屬韻 只於道中 紀行而止 又未能卒編爲恨 而又增新舊悲懷而已 後之讀之者 庶或諒其志 而恕其愚也.
- 7) 『外史續編』5, 「拜啓茂林世兄 甲午四月」; 今月初七日午刻 入抵會同館 而家兒欲遂蘇子由大觀之心 隨來老父 忽於伊夕 無病身故 此是弟之獨子 如形依影 度了此生 今於萬里他鄉 遭此前古希有之毒滅 心魂震驚 悲冤填臆 喪威之餘 仍爲病臥.
- 8) 『外史續編』7, 「祭亡兒縣監文」; 昔我曾王考棄世 春秋加汝一齡 先考捐背 纔踰弱冠

하지만 이러한 슬픔을 겪으면서도 관암은 중국 문인과의 교류에 힘을 기울여 帥方蔚, 卓秉恬, 卓秉愷, 陳瑾光, 葉志誥 등과 교류관계를 맺고 돌아온다.

### 3. 2차 여행에서 만난 인물과 그 교류 양상

#### 1) 紀樹葵

紀樹葵는 1차 여행에서 만나 세교를 계속 유지하는 인물이다. 관암은 1차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지속적으로 기수유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 『외사속편』에는 관암이 기수유에게 보낸 편지 17편, 기수유가 관암에게 보낸 편지 17편이 실려있다. 이 중 7편은 중국에서 주고 받은 편지이고, 나머지는 귀국 후에 주고 받은 편지이다. 관암은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기수유를 만나보고자 하였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편지로 인사를 대신한다. 이들은 서로 만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신을 왕복하다, 보름이 지난 4월 23일에 만나고 기수유에게 그림을 그려줄 것을 청한다. 이에 기수유는 “난 1폭을 그려 가지고 가게 하니 받아 주십시오. 저는 본디 그림에 능하지 못하지만 형이 반드시 저에게 그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색채할 뿐입니다.(畫蘭一小幅 使付去 祈檢收 弟本不工於此道 而吾兄必欲弟爲之 只好聊以塞責而已)”라고 하며 그림을 그려 보낸다. 이어지는 편지에서 관암은 陶厓 洪錫謨에 대한 답서를 요구하는데 아마 관암이 여행에 임할 때 도어가 써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수유가 감기로 인하여 답서를 쓰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게 된다. 東還 후에 관암은 기수유에게 자식의 영구를 가지고 돌아오는 슬픔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짧은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는 변중운(1790~

今又汝妙年夭折 以其歲則未滿百年也 以其世則纔爲五代也 百年之內 五世之間 三有此喪 天於我家 何若是荼毒之荐 降慘酷之變乎.

1866)을 통하여 기수유에게 전달되었다.<sup>9)</sup> 이들의 이야기는 삼세신교에 관계된 이야기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주로 되어있다.

1835년 12월 30일에 기수유는 편지와 함께 인장 3方과 벼루 1面을 보내었으며,<sup>10)</sup> 1837년 1월 3일 편지에 이주경으로부터 薰谷世叔(洪羲俊)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며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다.<sup>11)</sup>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다. ‘世叔’, ‘世兄’이라는 용어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친척관계에 준하여 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유의 배경에는 耳溪와 紀曉嵐의 교유관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기수유는 1839년 1월 24일 편지에 둘 사이의 신교가 10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관암이 부탁한 山林泉石圖를 그려 보낸다.<sup>12)</sup> 관암은 이 山林泉石圖 족자 네 폭에 대하여 평을 하고 다시 堂記와 詩를 지어줄 것을 청한다.<sup>13)</sup> 또한 기수유는 관암에게 『耘石詩文集』 이외에 새로 지은 시문이 더 있는가를 묻고 관암에게 가장 작은 황모필을 구하였다.<sup>14)</sup>

전에 부쳐드린 堂記는 바로 錢香樹 선생의 태부인(자당)의 필적입니다. 향수 선생은 이름이 陳群이고 향수는 외호입니다. 건륭 연간에 일찍이 예부상

- 
- 9) 『外史續編』5, 「冠巖世兄台展」; 貴及門下若鍾運 忽過相訪 傾談之下 知爲淹雅之士 潛心經史 攷求故實 誠不愧爲仁兄高足.
- 10) 『外史續編』5, 「洪冠巖世兄覆書紀茂林緘」; 素識一友 爲篆刻印章名手 弟特洵其爲足下 鐫印三方 不意伊因新正冗忙 未暇操刀 竟倩他人代爲之.
- 『外史續編』5, 「茂林世兄玉展」; 又重之伴以一面之硯 三方之印 尤認我二人之神交 心心相印 不以山川間之 而千萬里如庭除也.
- 11) 『外史續編』5, 「洪冠巖世兄收攬」.
- 12) 『外史續編』5, 「洪冠巖世兄覆書 己亥新正茂林緘寄」; 囑作山林泉石圖 數年前 弟雖許諾 實因自慚陋劣 是以因循未果 茲來書諄諄 欲弟踐言 且有晝夕如對故人之語 不得已勉圖四幀寄呈 而陋劣仍復不免得勿貽笑於大方 則幸甚.
- 13) 『外史續編』5, 「興紀茂林」; 四幀山水圖 細密高古 深得畫家三昧 環揭四壁 古氣滿屋 若復以堂記與五言詩篇 而鋪張之 草堂尤爲生顏 而晝夕盥誦 如對故人 倘或副此萬里凝佇之誠否.
- 14) 『外史續編』5, 「冠巖仁兄拜覆」.

서를 지냈고 文達公의 스승입니다. 그 태부인 진씨는 만년에 南樓老人이라 자호하였고 그림으로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친 바의 시축은 그의 진적입니다.<sup>15)</sup>

기수유는 할아버지의 스승인 錢香樹 선생에 대하여 관암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관암을 통하여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조선에 알리기 위함이다. 이후에도 인장을 부탁하며 교류하는데 기수유의 편지는 1843년 이후로 끊어지게 된다. 관암은 기수유에게 부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左海千山隔	좌해 천 산이 가려진 곳에서
中州一士豪	중주의 한 호걸스런 선비를 생각하네
風流餘俊及	풍류는 준급 <sup>16)</sup> 과 같고
文藻繼遷臯	문장은 遷臯 <sup>17)</sup> 를 이었도다
癯鶴傳神逼	여윈 학은 전신이 찡찡하고
跡梅得韻高	거친 매화는 운치가 높네
還憐百年宅	돌아와 오랜 가문 생각하니
喬木漫蕭騷	교목에 부질없이 바람만 부네

秋山今夜月	가을 산 오늘 밤 달을 보니
如見所懷人	마음 속에 품은 사람 만난 듯
舊契仍三世	옛 약속 삼 대에 이어졌지만
殘年已八旬	쇠잔하여 이미 팔순이네
天涯心共印	하늘 가 마음은 함께 비추지만
夢裏語非眞	꿈속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네
一種此生恨	한 가지 이 세상의 한은

15) 『外史續編』5, 「冠巖世兄展 茂林拜寄」; 前奉寄去堂畫 乃錢香樹先生太夫人之筆 香樹先生名陳群 香樹其表號也 乾隆年間 曾官禮部尙書 爲先文達公之師 其太夫人陳氏 晚年自號南樓老人 畫名重於當時 所寄之軸 其眞蹟也.

16) 俊及: 八俊과 八及을 가리킴. 팔준은 동한시대 현덕이 있고 영향력 있는 여덟 사람을 지칭하며, 팔급은 동한 시기 재능과 명망이 있는 여덟 사람을 가리킴.

17) 遷臯; 미상.



芝眉更難親 그대를 다시 만나기 어려움이라오<sup>18)</sup>

『叢史』8에 기수유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 2통과 그의 아들인 紀瑛璜에게 보내는 편지 1통이 실려 있다.

## 2) 帥方蔚<sup>19)</sup>

『외사속편』5에 실려있는 관암이 帥方蔚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1834년 5월 2일에 쓴 것으로 귀국하기 바로 전의 것이다. 帥方蔚과의 교유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던 듯하다. 하지만 관암은 이 글에서 신교를 운운하며 帥方蔚과 이후에도 계속 교유할 것을 청하고 있다.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은 원래 안면에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으로 사귀지 않고 낮으로 사귀는 것은 面交이고, 낮으로 사귀지 않고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바로 神交입니다. 진실로 능히 마음으로 서로 우애하면 千萬里가 庭除와 같고, 千萬載가 朝夕과 같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얼굴을 알고 모름과 聚散이 오래고 아님에 얼마일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족하와 겨우 한 번 얼굴을 본 사이인데 그래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족하도 실없는 사람으로 저를 보았더라도 반드시 이 마음을 믿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말은 정말로 장난에서 나온 것이고 족하의 대답도 장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시경에 이른 바 '농담을 잘함이어' 라는 것이고 그로써 족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이미 알면 지역이 달라도 마음은 같으니 또한 신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돌아가게 되어 이어 다시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心契에 의탁하여 때때로 楮墨을 보내어, 犀角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고 거울처럼 비추어 마음을 알 수 있

18) 『叢史』7, 「寄紀茂林」.

19) 帥方蔚과의 교유에 관한 내용으로 『외사속편』외에 『한객시존』, 서목문헌출판사, 1996.에 帥方蔚이 관암에게 보낸 서간 3편과 관암이 帥方蔚에게 보낸 서간 3편이 실려 있다. 『한객시존』 부록, 「좌해교유록」의 처음에 帥方蔚의 약전이 실려 있음. 김명호 교수의 「동문환의 『한객시존』과 한중문학교류」 『한국한문학회연구』 26, 2000 참조.

다면 天涯 먼 곳도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楮墨을 통해 만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sup>20)</sup>

이 글은 『韓客詩存』, 『左海交遊錄』의 내용과 같다. 『左海交遊錄』은 帥方蔚이 조선 문인과 교유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다. 다만 『韓客詩存』 『左海交遊錄』의 내용과 『外史續編』을 비교해 볼 때,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韓客詩存』, 『左海交遊錄』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韓客詩存』, 『左海交遊錄』에 兀文四冊, 大貫二冊, 圖卦發蘊一冊, 圖書衍象二冊, 玩易大旨一冊을 받았다고 부기하고 있다. 『外史續編』에 기록된 帥方蔚의 답서에는 「承贈兀文四冊 大貫二冊 圖卦發蘊一冊 圖書衍象二冊 玩易大旨一冊 謹已拜受容 暇中一一研讀也 外又辱賜諸珍 謹領團扇一柄敬謝 其白楮紙二十張 霜花紙二十張 色箋二十幅 清心元十九 仍交來使 繳還 乞查收」라고 하여 관암이 帥方蔚에게 준 물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sup>21)</sup> 다음은 『韓客詩存』, 『左海交遊錄』의 서문으로 帥方蔚이 쓴 것이다.

지금 조선은 문장에 능한 선비가 많아 종종 중국의 명사에 붙어 그 명망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이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광 6년에 내가 제 삼인으로 급제하여 조정에서 대책을 지었는데, 크게 여러 명공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그 사실이 조선에 전해져, 김영작, 홍양후 등이 다투어 교유를 원하고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어 해마다 끊어지지 않았다. 사신들도 문에 나와 뵈기를 구하여 한번 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도성에 들어온 자는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스스로 통교하였으며 조선에 있는 자는 편지를 보내어

20) 『外史續編』5, 「與帥石村」; 夫人之相交 原不在顏面 不以心而以面 是面友也 不以面而以心 是神交也 苟能以心而相詔 千萬里如庭除 千萬載如朝夕 何必拘拘於顏面之知與不知 聚散之久與不久乎 僕於足下 甫經一面之間 而猶有忖度者 足下猶以妄人視僕 而必不諒此心矣 僕之前言 實出於戲耳 而足下之所答 亦出於戲耳 則此詩所云 善戲謔兮 而有以知足下之心 心既知矣 異地同心 不亦爲神交乎 僕今東歸 縱未更面 托以心契 時寄楮墨 如犀之通 如鏡之照 可爲天涯之比隣也 且相見於頰舌 與相見於楮墨一而已.

21) 『外史續編』5, 「洪冠巖樞密足下台展石村手槧五月二日即須出門公幹不暇多作答也并及」.

글로 질정하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는 만나보았고(노철흙, 이형기, 정원용, 원용의 아들 정기세, 홍경모, 성재시 등) 어떤 이는 만나지 못했지만(김영작, 김이문, 홍양후, 홍현주, 홍희준 등) 모두 스스로 交好를 의탁하여 나는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비록 그 이름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러러 사모하는 정성은 또한 높이 사줄 만하다.<sup>22)</sup>

다분히 조선을 낮추어 보는 고자세의 발언이다. 이 서문에 의하면 조선의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교유를 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청의 인사들이 조선의 문인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의 문인 중에 중국 문인과 교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교유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에도 조선 문인과 교유에 정열을 기울인 인물들이 있었다.

아무튼 교유의 물꼬를 튼 관암은 楹帖과 부채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다지다가 귀국하게 된다. 귀국 후에도 이들의 교유는 사신 편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계속 이어진다.

관암은 귀국 후 1834년 10월 15일 인편으로 여러 經書의 의문스러운 곳에 대해 問目을 만들어 帥方蔚에게 질문하였다. 이 문목의 내용이 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교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학문이 교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점을 기록하여 여러 조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졸렬함을 망각하고 우러러 크고 맑은 대음을 듣고자 하니 모름지기 자세하게 살펴본 뒤에 일일이 조목에 따라 변석하여 해외의 국한된 식견으로 하

22) 『韓客詩存』, 書目文獻出版社, 1996. 今朝鮮多能文之士 往往依附中朝名士 藉其聲望以自爲名 道光六年 余以第三人及第 廷對策 大爲諸名公激賞 傳入朝鮮 而金永爵洪良厚之徒 爭願納交 詒書問訊 歲歲不斷 至於使者 則造門求謁 以一見爲榮 入都下者 投刺以姓名自通 居國中者 寓書以文字來質 其間或相見 盧哲欽李亨基鄭元谷元谷子基世洪敬謨成載詩等 或未嘗相見 金永爵金彝問洪良厚洪顯周洪羲俊等 皆自托交好 恐不得當 雖其好名之心 而仰慕之誠 亦足尙也.

여금 미혹됨에서 깨어나 방향을 알게 해주신다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sup>23)</sup>

이렇게 문목을 보낸 관암은 帥方蔚로부터 답신이 없자 이에 대하여 답을 요구하며 계속 편지를 보낸다.<sup>24)</sup> 이에 帥方蔚은 시간에 구애되어 일일이 답변을 하지는 못하지만 관암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배들의 정설이 있다고 답장을 보낸다. 帥方蔚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은 서적이 부족하여 이러한 글들을 보지 못한 것뿐이라고 한다.

은 편지에 진술한 바의 諸經義를 읽어보고 족하의 학문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자질을 알았습니다. 다만 거론한 바의 각 사항은 대체로 선유들에게 이미 정론이 있는데 족하가 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동국의 전적이 적으니 족하가 의문을 풀지 못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새해를 맞아 공사간의 일들이 모이고 뒤섞여 족하를 위하여 일일이 지적해 내지는 못하였습니다.<sup>25)</sup>

1차 여행에서 만난 육경이 진연은에 비하면 교유의 정의가 덜함을 알 수 있다. 육경이와 진연은의 경우 각종 전적을 참고하여 자세하게 대답하였는데 帥方蔚의 경우 공사간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차 여행에서 만난 인물들보다 성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차 여행에서 만난 인물들이 세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23) 『外史續編』5, 「帥石村御史收啓」; 今茲以平日之所蓄疑者 錄成諸條 忘其拙蕪 仰叩洪鍾之大音 幸須細覽後 一一逐條辨破 使海隅局見 扁迷而指南 則豈不大幸也哉.
- 24) 『外史續編』5, 「帥御史手啓」; 昨冬貢行 書以致意 伴之經說 使還而未承回音 遠人之缺望 何如也 初寒漸峭 伏惟養福 和神順時 自重爲頌 前呈經說 以嘗所起疑 仰質於高明者 如荷剖示 俾吳蒙 得以扁迷以開茅 則此先覺所以覺後覺也 未知如何.
- 25) 『外史續編』5, 「洪冠巖樞密手啓 石村槭寄」; 來書所陳諸經義 閱之 其見足下好學深思之美 顧所舉各事 大氏儒先已有定論 足下未之見耳 東國載籍稀少 無怪足下之懷疑不釋也 新正公私叢襍 不能爲足下一一指出.

관암은 계속하여 경설에 관해 언급하며 자신의 글에 서문을 부탁하기도 한다.<sup>26)</sup> 관암의 부탁에 帥方蔚은 서문을 지어 주는 대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보내온 편지에 저로 하여금 尊稿의 서문을 부탁하였는데 저는 족하의 저작을 보지 못하여 진실로 어디로부터 말을 놓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찍이 족하가 부친 諸經疑義를 한 번 읽어보았는데 족하가 진실로 好古博雅의 선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어서도 학문을 좋아하고 열심히 힘써 그치지 않으니 한 시대에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만하군요.<sup>27)</sup>

이렇게 볼 때 관암의 문집 서문에 함께 보았다고 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관암이 이미 치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비친다. 이들의 편지가 여기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帥方蔚이 낙향한 뒤 이들의 서신 왕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帥方蔚의 이 편지는 도광 18년(1838) 1월 12일에 쓴 것으로 대략 4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셈이 된다.

### 3) 卓秉恬·卓秉愷

관암은 2차 여행 중인 1834년 4월에 海帆 卓秉恬에게 보낸 「海帆先生 惠展」에서 “지난 번 경산 정원용이 돌아와 웃으면서 선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일찍부터 영명을 날리고 문채가 화려하여 비록 큰 나라 인사가 많아도 미칠 자가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높으신 이름을 듣고 나도 모르게 기뻐하였는데 지금 다행히 사명을 띠고 도성에 들어왔으니

26) 『外史續編』5, 「石村御史收覽」.

27) 『外史續編』5, 「洪冠巖樞密手啓 石村手緘」; 來書欲僕爲尊稿作序 僕未見足下著作固無從措詞也 顧嘗讀足下所寄諸經疑義一通 知足下實好古博雅之士也 耄而耆學孜孜不已 可謂魁量耆艾 傑出一時者歟.

문에 나아가 정교를 청하고 싶습니다.”<sup>28)</sup>라 하여, 鄭元容(1783~1873)의 소개로 卓秉恬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結交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卓秉恬과 만나게 되지만 卓秉恬이 일이 있어 금방 자리를 뜨게 된다. 관암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卓秉恬의 동생인 筍山 卓秉愷이 그린 筆談圖의 시를 보고 예전에 海居 洪顯周(1793~1865)와 경산 정원용이 칭찬했던 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의 기행시를 보내어 서문을 받고자 청한다.<sup>29)</sup> 이 문장을 보면 중국 인사와의 교류와 중국인사에게서 서문을 받는 것이 조선 사인에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이에 卓秉恬은 “귀하의 기행시권에는 절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읊시 한 수를 써 보내니 산삭하여 교정하십시오. 아울러 제가 쓴 영첩과 서안사의 석각과 제가 지은 오중유별시 그리고 성오재집을 보냅니다.(大著紀行詩卷 其中有絕妙者 今以一律奉題書 請削正 附以拙書楹帖 徐安棧石刻 拙作吳中留別詩 省吾齋集)”라고 답신을 보낸다. 卓秉恬의 이 시는 『冠巖遊史』 1책의 앞머리에 실려 있다.

地僻絕纖塵	세속과 단절된 궁벽한 곳
簡編終日親	서책만이 하루종일 친하구나
畫圖聊寫我	그림에 나를 그려 넣으니
花木亦娛人	꽃과 나무도 사람을 즐겁게 하네
退食了無事	물러나 은거하여 일 없으니
幽居別有春	그윽한 곳 만 세상의 봄
定知攤卷處	알겠구나 책이 펼쳐진 곳

28) 『外史續編』5, 「海帆先生惠展」; 曩吾經山鄭元容之東還也 吃吃說先生早歲蜚英 文彩煒燁 雖以大邦人士之衆 鈔有及之者 敬讓自聞高名 不覺驚喜 今幸以使命入都 竊擬造請於門屏.

29) 『外史續編』5, 「海帆先生手啓」; 得見筍山所畫筆談圖詩 才子風流 文彩輝映 樽俎間而先生首題之詩 溫厚和平 沈雄穠麗 有朱絃疏越之音 海居經山之所盛稱者 果不爽也 竊欲和南以謝盛意 慘制在身 無意於吟詠事 茲以紀行詩若干篇代之 要祈斤政 兼擬留筆跡於案下 以替日後相思之資 而此是途中未定稿也 文荒筆拙 竊想見笑於大方 如蒙一言之評 可以歸託於海外 惟先生勿却而圖之.

雲護朗吟身 구름은 읊조리는 사람에 머무네<sup>30)</sup>

한편 筍山 卓秉愷은 관암이 卓秉恬에게 쓴 편지에 대하여 卓秉恬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卓秉愷이 대신 답장을 하면서 “작년(1833)에 경산 부자가 도성에 와서 해범 가형과 문장을 논하고 책을 읽으며 자주 시연을 열었습니다. 저도 다행히 말석에 참석하여 수창하는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前歲 經山橋樑 來輦下 與海帆家伯兄 論文讀畫 屢啓詩筵 僕亦幸陪末座 共聯唱和之歡(『外史續編』5 「藉呈冠巖先生」)”라 하여, 이전에 경산 정원용 부자와 만났던 경험을 말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 관암은 북경에서 사귄 인사들과 예물을 주고받으며 특히 시문과 필적의 교환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연행이 끝난 후에도 서로 기억하자는 의미가 강하다. 卓秉愷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와 같은 바람이 담겨 있다.<sup>31)</sup> 이렇게 예물을 보내고 관암은 이들에게도 그들의 心畫을 보여줄 것을 청한다. 이에 卓秉愷은 그림 한 폭을 그려 보내게 된다. 卓秉恬과 마찬가지로 卓秉愷 역시 『관암유사』의 앞머리에 한 편의 절구로써 題를 한다.

해동의 흥관암 선생이 은거하여 독서함이 때마다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은 충담하여 스스로 무궁한 즐거움을 닦는데 그 巖棲志를 읽어보고는 터득한 것이 있어 인하여 암서도를 그려 주니, 이 중에 숲의 풍경은 알지 못하겠지만 책을 펴고 눈동자를 돌릴 때와 서로 비슷 한가요? 이어 소절을 읊는다.<sup>32)</sup>

30) 道光甲午孟夏 宗人府府丞加二級益州 卓秉恬題冠巖先生巖棲志.

31) 『外史續編』5, 「藉覆筍山足下」; 僕之結緣於足下者 不過數刻之頃 百年未必如炊之久 則數刻之頃 亦云多矣 既無復會 安得不招悵而缺然哉 爲其日後相思之資 諸公扁號 塗鴉以呈 非曰能也 欲存拙迹於案右者 足下亦以此意寫出書畫數幅 而海帆先生 暨研侯鶴溪諸公 母慳揮灑 各其隨所長并書於一帖以惠 俾使海東并觀之人 咸知僕有翰墨之緣於中華諸君子 豈不休哉 小紙一方 又伴之 此則欲付諸詩帖之首者也 亦望依此紙畫 得一房山半畝塘以還好矣 研侯鶴溪未能各幅幸輪照焉 不腆數品 聊表遠情 莞頌如何.

32) 海東洪冠巖先生巖居讀書 四時不輟 其胸懷沖淡 自厲無窮之樂 讀其巖棲志而有得 因寫巖棲圖爲贈 此中林巒風景 不識 與展卷縱眸時 相似否 系以小絕句.

茂林深處卜幽居	무성한 숲 깊은 곳에 은거지를 정하고
退食於斯樂有餘	물러나 은거하니 즐거움이 넉넉하네
水態山容供嘯傲	물과 산은 노래부르며 읊조리기에 알맞은데
推窓隱几讀奇書	창을 열고 안석에 기대어 기서를 읽누나 <sup>33)</sup>

이렇게 자신의 문집에 서를 받은 관암은 여행을 마치고도 이들과 시와 그림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나가는데 이들과의 편지는 1836년 1월 21일에 卓秉愷이 보낸 편지로 끝을 맺고 있다.<sup>34)</sup>

#### 4) 陳瑾光

관암과 陳瑾光은 진연은을 매개로 하여 교류관계가 이루어진다. 위의 글에서 보이듯 관암이 진연은에게 안부의 편지를 써 보냈는데 마침 진연은이 집에 없어 陳瑾光이 받아보고 관암에게 대신 편지를 써 보낸 것에서 그 교류가 시작된다. 陳瑾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래의 편지를 통해 진연은의 族祖父임을 알 수 있다. 관암은 陳瑾光의 편지를 받아보고 북경에 도착하는 즉시 찾아보려 하였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교류가 늦어지게 되었다.

지난 병술년(1826)에 계부인 蕪谷公이 사신의 임무를 띠고 북경에 가 石士 선생과 결교를 하였는데 종제인 陶厓도 돌보아주는 은혜를 입고는 고향에 돌아와 자랑하며 선생의 愛人下土之風을 성대하게 칭찬하였습니다. 저도 집에서 듣고 천리밖에 마음을 기울여 한번 뵙는 것으로 통쾌함을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인년(1830)에 연공사로 북경에 들어와 공음이 이용에게 명함을 내민 것처럼 하여 자유의 대관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선생께서 당시에 임소에 계시어 문에 나아가 교류를 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등지와 더불어 교류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 연이어 편지를 보내

33) 甲午之夏四月 筍山卓秉愷題.

34) 관암은 卓秉恬·卓秉愷 외에도 卓硯侯·鶴溪·卓樞 등과 교류를 하고 이들이 쓴 서를 『관암유사』의 앞머리에 실고 있다.



얼굴을 대신하는 자료로 삼았고 작년 겨울에 또 연공사 편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진하정사의 임무에 응하여 변문(책문)에 이르러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니 등지 별가에게 보낸 편지를 대신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그대가 석사선생과 형제간이고 등지와 同堂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반면식도 없지만 이미 마음에 결교를 의탁하였으니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영광으로 생각되어 저도 모르게 신이 납니다. 북경에 도착하는 날에 즉시 문에 나아가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sup>35)</sup>

1826년 洪羲俊(1761~1841)이 謝恩正使로 여행할 적에 洪錫謨(1781~1857)가 護從하였다. 이 여행에서 홍석모는 많은 중국 문인과 교류하고 『遊燕稿』에 이들에 관한 간략한 인적사항과 함께 주고받은 시를 기록해 놓았다. 이에 자극 받아 관암의 교류가 이루어짐을 1차 여행에서 이미 고찰하였다. 관암은 이 글에서 북경에 도착하기 이전에 陳瑾光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진연은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교류를 청하고 있다. 孔融이 李膺에게 명함을 내밀었다는 말은 『後漢書』 「孔融傳」에 나오는 말로 사람됨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蘇子由의 大觀之心은 산천은 물론 인물까지 다 만나본 뒤에야 유감이 없을 것이라는 蘇轍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북경에 이르러 명함을 내밀었지만 만날 날을 정하지 못하고 편지만 왕래하다가 18일에 만나게 된다. 기수유보다 오히려 빨리 만난 것이다. 관암은 陳瑾光과 만나 필담한 내용을 훗날 相思의 자료로 삼기 위해 따로 기록하는 정성을 보이고 있다.<sup>36)</sup> 이렇게 교류를 맺은 이들은 자주 만나게 된다. 기수유를

35) 『外史續編』6, 「玉士陳先生手啓」; 往歲丙戌 季父薰谷公奉使赴京 託契於石士先生 而從弟陶厓亦蒙顧盼之眷 歸訖家鄉 盛稱先生愛人下士之風 敬謨承聞於家庭間 傾心千里之外 願以一覩爲快 幸於庚寅 以年貢使入都 不擬孔融之抱刺 得遂子由之大觀先生時在任所 無由造請於門屏 故遂與登之訂交而歸 歸後連以尺素爲替面之資 而昨冬又付書於貢使便 仍膺進賀正使之任 行到邊門 伏奉足下書函 乃以數字示其寄登之別 駕紙捲代收之意也 拚書以後 始知足下與石士先生爲昆季之間 以登之爲同堂之親 雖無半面之雅 已托在心之契 且喜且榮 不覺神聳 欲於上京之日 卽當詣門通好.

36) 『外史續編』6, 「玉士足下手展」; 筆話膾下後 原幅送之 而各執其半 以替日後相思之

제외하고 2차 여행에서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陳瑾光이다. 이는 진연을을 매개로 하여 관암의 집안과 世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암은 북경에서 陳瑾光에게 9편의 편지를 보냈고 陳瑾光의 아들인 陳蘭疇에게 1통의 편지를 보냈다. 한편 陳瑾光은 관암에게 6통의 편지를 보내고 陳蘭疇는 1통의 편지를 보낸다. 동환 후에 관암은 陳瑾光에게 5편 陳蘭疇에게 2편의 편지를 보내고 陳瑾光은 관암에게 3편 陳蘭疇는 관암에게 1편의 편지를 보낸다. 이들의 교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처음 만난 후 다시 만날 날을 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편지를 왕복하다가 28일에 다시 만나기로 한다. 이 만남이 있고 난 뒤 관암은 耳溪가 紀曉嵐 등과 교류하고 시문집에 서문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의 기행시에도 서문을 써줄 것을 부탁한다.

신왕고 이계공께서 일찍이 두 번 사신의 임무를 띠고 연경에 들어와 紀曉嵐 선생 梁德圃 尙書 戴蓮士 修撰과 교류하였는데, 문장을 일찍이 기효람 선생께서 추켜주시고 시·문집에 모두 서문을 써주셨습니다. 사신을 적의 紀行詩를 마침 가지고 와 이에 드리니 해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차 도중에 한 편을 지었는데 또한 같이 올리니 책의 말미에 발문을 써주어 이 지극한 뜻을 헤아려 주신다면 어떠하신지요?<sup>37)</sup>

관암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계의 문집을 전하는데 이는 이계를 중국문단에 알리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자기가 이계의 손자라는 자긍심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陳瑾光은 이에 기행시에 서문을 써주었다. 이어 교류의 자료로 삼기 위해 陳瑾光에게 글씨를 써 줄 것을 청한다.

제가 옥사 족하와 교류를 맺은 것은 등지가 인연이 되었는데 등지가 삼뿔

資 亦好.

37) 『外史續編』6, 「玉士先生惠覽」; 先王考耳溪公嘗再奉使入燕 與遊 文章曾爲曉嵐先生獎詡 蒙賜詩文集兩序矣 奉使時 紀行詩 適帶來 茲以奉呈 幸垂惠覽 而僕之今行道中作一匾 亦爲伴上 小跋係於軸末 諒此至意 如何.

에 벼슬살이하여 지금 다시 옛 인연을 이룰 수 없으니 등지에게 탁계한 것을 옥사 족하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翰墨도 인연이 있는 것이고 만남과 헤어짐도 인연이 있는 것이어서 당인이 소설에서 “다만 금석 같은 약속만 남아있고 풍월처럼 둘이 서로 잊었네”라고 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문장知遇는 진실로 형적의 가깝고 넓에 있지 않으나 서로 만남이 이미 늦은데 이별이 너무 급하니 어찌 묵묵히 혼을 녹이지 않겠습니까? 족하의 필적을 책상머리에 두고자합니다. 기행시 한 편으로 만리 상사의 거동을 대신하니 옥사 족하도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요? 부끄러운 것은 문장이 거칠고 필체가 졸렬하여 대아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근정을 바랍니다.<sup>38)</sup>

陳瑾光은 이 편지를 읽고 자신의 집안과 世好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관암이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석각을 친구에게 부탁하여 새기게 하고 자신의 작품과 글을 보내며 관암에게 영첩을 써줄 것을 부탁한다. 관암은 陳瑾光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자신의 글씨에 대해서는 겸사를 표한다.

두 장의 心畫은 점점 鍾王의 경지를 출입하고 있으니, 공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합니다. 이로써 登之의 絕藝가 가정에서 淵源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仙槎 선생의 서법은 또한 그 妙함에 나아가 古氣가 집안에 가득 차니 배처럼 여기며 玩味할 만합니다. 저는 본래 임지의 기술이 없고 다만 되는 대로 써서 남에게 보일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 楹帖을 써서 보내라고 하시니, 무슨 취할 것이 있다고 이로서는지 진실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작은 종이에 쓰신 芍菊 두 詩는 足下가 읊은 것입니까?<sup>39)</sup>

38) 『外史續編』6, 「書紀行詩後奉贈玉士」; 僕之訂交於玉士足下 登之爲之因 而登之之官三吳 今無以復續舊緣 則以托契於登之者 不可移之於玉士乎 翰墨亦有因緣 離合亦有因緣 唐人小說有詩云 但存金石契 風月兩相忘 足可以借用 文章知遇 固不在形迹遠近間 然相見既晚 相別太速 寧不黯然而消魂 欲存筆跡於案下 以紀行詩一匾 用替萬里相思之儀 未知玉士其能實予于懷否耶 所媿者 文荒筆拙 無足以當大雅 惟望斤政.

39) 『外史續編』6, 「玉士足下文几」; 兩紙心畫 鬚鬚然出入於鍾王之闔 可敬可愛 而有以知登之之絕藝 自有淵源於家庭間也 仙槎先生書法 亦臻其妙 古氣滿屋 可合寶玩 僕素無臨池之工 只從行墨間書去 無足示人 今承楹帖書送之教 未知何所取而有此示也 誠不敢當……小紙芍菊兩詩 亦足下所詠耶.

그리고 앞에서 부탁했던 석각이 기한 안에 완성되지 못하자 재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陳瑾光은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낸다.

手書와 楹帖을 받아보니, 분수에 넘치게 칭찬하셨습니다. 부끄러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芍藥 두 詩는 吳梅村의 詩인 듯합니다. 吟詠하던 중에 우연히 기억한 것이며, 또한 그 꽃에도 다정한 뜻이 있음을 취한 것입니다. 圖書는 아이에게 새기도록 한 것인데, 불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벗들이 대부분 약속처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시켰습니다. 登之의 소개로 갑자기 足下와 여러 차례의 翰墨緣을 맺게 되었으니,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sup>40)</sup>

관암은 이 인장을 받은 뒤에 陳蘭疇에게 서신을 보내어 감사를 표하고 인장에 대한 評까지 하였다.

어제 존대인의 편지를 받고 또 인장을 받았는데 진실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吳大士萬楷가 새긴 것을 보았는데 자못 공교롭고 정밀하며 옛날에 가까웠는데 지금 족하의 수법을 보니 공교롭고 정밀하기는 비록 떨어지지만 우아한 운치는 나으니 책상 앞에 두고 만리 상사의 자료로 삼을 만합니다.<sup>41)</sup>

그리고 작은 기예에 힘쓰기보다는 업을 넓히고 공을 높여 영광스런 명성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며 자신의 가문과의 세호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시문과 편지를 왕래하는 사이 사행의 기일이 다 되어 관암은 이들과 이별하고 돌아온다. 東還 후 관암은 陳瑾光에게 『시경』의 「蒹葭」시를 이야기하며 그리워하는 심정과 함께 진연은의 소식을

40) 『外史續編』6, 「藉呈洪大人台升」; 奉手書及楹帖 優獎逾量 愧不敢當 芍藥二詩 似是吳梅村詩 吟詠偶記 亦取其花 亦多情之意耳 圖書命兒子鐫就 未知足觀否 友朋多不能如約 故不得已而命之也 以登之爲介紹 忽與足下 結此數番翰墨緣 大是快意事.

41) 『外史續編』6, 「與陳大雅」; 昨拜尊大人惠覆 又奉印章 良感多勞 頃見吳大士萬楷所鐫 頗工精而稍近於古 今見足下手法 工精雖遜 雅致則勝 可以置諸案頭 以替萬里相思之資矣.

묻는 편지를 보낸다. 한편 陳瑾光은 형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관암에게 先兄의 「行狀」과 家刻한 五經全帙을 보내 주었다.<sup>42)</sup> 이후 관암은 안부를 묻는 편지를 두 차례 중국으로 보내지만 답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교류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 5) 葉志詵

북경에 도착한 관암은 葉志詵에게도 편지를 쓴다.

지난 경인년(1830)에 제가 연공사로 입경하여 크게 문에 나아가 청하려고 하였는데 당돌할 것 같아 곧바로 나가지 못하였고 또한 먼저 용납함도 없었기 때문에 識荊(명사를 만나 그 이름이 알려짐)의 원을 이루지 못하고 경경한 마음을 품고 헛되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행히 사명을 띠고 다시 上都에 이르렀으니 이에 조금이나마 전일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군의 청도 있으니 편안히 품은 생각을 펼치겠습니다. 혹시 선생께서 비루 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만날 것을 허락하신다면 삼가 마땅히 찾아뵙겠습니다.<sup>43)</sup>

경인년에 벌써 葉志詵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듯하다. 관암보다 먼저 중국에 다녀온 秋史의 기록에도 葉志詵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관암이 추사와 교류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면 추사를 통하여 이들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葉志詵은 조선 문인들과 많은 교류를 한 문인이다. 중국에 갔던 대부분의 인사들이 葉志詵과 만나고 있음을 조선 후기 사행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이들 사이에도 卞鍾運이 등

42) 『外史續編』6, 「冠巖先生賜覽」; 先兄行狀 奉塵清覽 家刻五經全帙 聊以伴函而已.

43) 『外史續編』7, 「葉東卿先生玉展」; 往歲庚寅 某以年貢使入京 丕擬造請於門屏 而跡涉唐突 不敢直進 且無先容 未遂識荊之願 抱茲耿耿 空還海上 今幸以使命又赴上都 斯可以少伸前日之恨矣 茲因卞君之請 安庸布所懷 倘先生不鄙夷之 肯許容接 謹當詣門.

44) 葉志詵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많다. 추사는 물론 정약용, 정원용, 이유원, 홍현주 등의 기록을 볼 때 葉志詵은 조선 문인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인물로 파악된다.

장하는데 변중운은 북경을 오가며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였던 듯하다.<sup>45)</sup>

십지선은 자가 동경이고 한양인이다. 병부낭중 벼슬을 지냈고 『御覽集』이 있다. 시화에 葉志詵은 옛것을 좋아하고 박학하였다. 고중학과 금석학에 특히 장점이 있었는데 일찍이 주정을 얻어 금산의 절에 두니 동시대의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시를 지어 장려하여 일시에 전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sup>46)</sup>

『晚清移詩匯』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또한 葉志詵은 골동에도 관심이 깊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기물들을 정리하여 『平安館藏器目』이라는 제목으로 묶어내기도 한다.<sup>47)</sup> 이러한 성향이 있던 葉志詵은 관암의 성향과 맞았던 것 같다. 葉志詵과 교유의 물꼬를 튼 관암은 이후 주로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게 된다. 葉志詵은 관암에게 劉文淸公의 楹帖을 써 주어 복과 수를 빌어주었다. 이에 대하여 “유문청공영첩의 축어는 진실로 좋지만 저의 나이 겨우 육순인데 이미 사궁(환과고독)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날마다 이 송으로 축원한들 장차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돌아가 가여운 손자에게 주어 깊은 정의 극진함을 갖추어 전하고 아물러 사랑하고 수를 비는 것으로 삼겠습니다.(劉文淸公楹帖祝語盡好 而賤齒纔到六旬 已占四窮之半 雖日祝此頌 將何以膺之 歸給哀孫 備傳盛意之勤 兼作愛欲壽之祝耳)”<sup>48)</sup>라고 답신을 보낸다. 이는 이미 부인과 사별하고 자식을 옥하관에서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부채에 海月銘을 써 주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葉志詵은 용정차를 보낸

45) 변중운, 『소재집』 권4, 「和陳侍郎用光永平府韻 并引」; 侍郎示其永平府之作 和之者卓海帆秉括郭羽可養黃樹齋爵滋 皆海內之宗匠也 永平府 古之孤竹國 西漢爲右北平 東漢爲盧龍縣 夷齊廟在西北灤水上.

46) 徐世昌編, 『晚清移詩匯』, 제5책, 권134, 중화민국53년, 世界書局刊行; 葉志詵 字東卿 漢陽人 官兵部郎中 有御覽集 詩話 東卿嗜古博學 考訂金石尤爲擅長 嘗得周鼎置金山僧寺中 同時俊流 皆賦詩以張之 一時傳爲佳話.

47) 『雙東齋藏器目外』, 中華書局, 1985 안에 실려 있음.

48) 『外史續編』6, 「東卿足下手啓」.

다.<sup>49)</sup> 이렇게 교류하던 관암은 사행 기일이 끝나 葉志誥와 이별하고 돌아오게 된다. 관암은 1835년 10월 15일 葉志誥에게 금강산을 여행하고 기록한 紀遊詩 2권을 보내 서문을 구하였다.

동해가에 금강산이 있는데 제가 놀러 간 것이 두 번입니다. 노닐면 반드시 시가 있게 되어 기록하여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지만 이것을 그대에게 드리고 겸하여 근정을 바라니 만약 취할만한 것이 있으면 한 마디를 내려 주시기를 지극히 바랍니다.<sup>50)</sup>

이에 대하여 葉志誥이 1836년 봄에 사신 편으로 답장을 보낸다. 이 답장을 보면 관암이 기유시 2권외에도 만유제비 답본과 손자인 우명의 글씨를 보내어 평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또한 葉志誥은 답장을 보내며 海嶽詩集의 題詞도 함께 보낸다. 관암은 葉志誥이 보내준 해악시집제사에 대해 “범범한 대아의 음을 읽어보니 쟁연히 소리가 있어 저의 작품이 꼬리에 붙어 더욱 드러날 수 있으니 어찌 영광스럽고 다행스럽지 안겠습니까?”라고 하며 추신에 葉志誥이 보내준 『김충절공유집』에 대하여 평을 하고 있다.<sup>52)</sup>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에 자신이 함경도관찰사로 나갔음을 알리며 葉志誥에게 예물을 보낸다. 葉志誥도 관암에게 자신의 두 아들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리며 예물을 보내고 있다. 이 편지가 葉志誥에게서

49) 『外史續編』6, 「耘石先生書」.

50) 『外史續編』6, 「藉望平安館」; 東海之上 有金剛山 僕之綏藜之遊 凡再 遊必有詩 錄爲二卷 自視欲然 用是仰質于高明 兼祈斤正 如有取也 幸賜一言之弁 至禱.

51) 『外史續編』6, 「冠巖先生安啓」; 兼以厚賜多儀 竝讀奇懷佳什 堤碑拓本 景仰請芬 海鮮靈柩 名箋雅箋 紛陳且席 游山巨軸 洵初唐元音 同社友人 皆借錄珍囊 共深傾倒 ……大集如教題詞一章 竝有覆和拙句 特以心交 自忘醜劣 恐先生見之 不免噴飯 附呈不腆 聊以伴函……承示十歲兒書 筆力健峭 頗有歐陽率更風韻 天資如此 加以學力 他日當以筆陣名家也 東卿評記.

52) 『外史續編』6, 「謹啓平安館」; 海嶽詩集題詞 瀟灑乎大雅之音 讀之鏗然有聲 拙蕪之作 可以附尾而益彰 寧不榮且幸哉 ……附惠金忠節公遺集 以一大白下之令人起懦 畫扇芳香襲人尤認同心之誼 石印心心相印 地黃膏服之可以却老 鳴謝

은 마지막 편지로 이후 관암이 두 번 편지를 보내지만 답이 없어 이들의 교유가 여기에서 끝이 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교유의 자료로 葉志誥이 관암에게 보낸 대련이 남아있다. 이 대련에는 “輪雲蓋雲輝騰五色 文露武露澤被九天”이라 쓰여 있다.<sup>53)</sup>

#### 4. 결론

홍경모는 자신의 편지와 받은 편지를 모두 기록하여 놓았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할 때 자료의 부족을 절감한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부족한 자료는 억측을 통하여 채워 넣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홍경모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관암이 이렇게 자료를 모아 남겨 놓을 수 있었던 근저에는 그 자신이 기록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서 유래한다.

본고는 홍경모의 2차 여행에서 중국인사와 교유한 실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행의 경험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을 문화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이들의 교유는 얼핏보면 조선 측에서 일방적으로 갈구한 듯이 보이지만 여행의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할 때 중국 측에도 조선인사와 교류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경모는 중국 인사와의 교유에 왜 이렇게 열정을 기울였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조부인 이계의 조술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계는 관암에게 있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관암의 삶이 이계의 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계의 뒤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계가 중국인사와 맺은 교유는 관암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53) 이 글은 문우서립의 김영복 선생이 이야기 해주어 실물을 접해볼 수 있었다.



둘째, 이계와 자신의 가문을 중국 문단에 알리기 위함이다. 관암이 만나는 인물들에게 이계와 기효람의 관계를 말하고 『이계집』을 건네주며 숙부의 문집도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을 중국 문단에 알리려는 생각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시문집을 중국에서 만난 인물들에게 주며 서문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받은 중국 인사들의 서문은 곧 조선에 소개되어 자랑거리가 되었던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인사들은 중국 문인들에게 자신의 문집 서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관암은 두 차례의 여행을 통하여 <燕槎紀略序> <燕槎紀略前編序> <燕槎紀略後編序> <斗南奇緣序> <同文奇賞序> <燕槎彙苑序> <廣和燕雲續詠詩韻序> <周京舊制總叙><sup>54)</sup> 등의 序文과 <斗南神交帖引> <槎上韻語引> <遼野程史引> <玉河涉筆引> <茶墨零屑引> <傾蓋叢話引><sup>55)</sup> 등의 引과 「槎上韻語」<sup>56)</sup> 「槎上續韻」<sup>57)</sup> 「廣和燕雲續詠詩韻」<sup>58)</sup> 「玉河涉筆」<sup>59)</sup> 「遼野記程」<sup>60)</sup> 등의 글을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관암은 중국 인사와 교류했던 기록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중국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록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염두에 둘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쉬운 것은 관암의 기록이 모두 남아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만약 관암의 기록을 더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관암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와 인에 나타나는 여행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은 원고를 달리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54) 『外史續編』4.

55) 『外史續編』4.

56) 『外史後編』5,6.

57) 『外史續編』1.

58) 『外史續編』2.

59) 『冠巖存稿』7.

60) 『冠巖存稿』8,9,10.

## 참고문헌

홍경모, 『총사』

\_\_\_\_\_, 『外史續編』

\_\_\_\_\_, 『冠巖存稿』

변종운, 『소재집』

『한객시존』, 서목문헌출판사, 1996.

徐世昌編, 『晚清簞詩匯』, 중화민국53년, 世界書局刊行.

『雙虞壺齋藏器目外』, 中華書局, 1985.

김명호, 「동문환의 『한객시존』과 한중문학교류」, 『한국한문학연구』26, 한국한문학회, 2000.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중국문인과의 교유와 그 의의」, 『동방한문학』23, 동방한문학회, 2002.

투고일 2003. 6.20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Kwan-am Hong, Kyung-mo's acquaintance with  
chinese literati and its aspect Centering around "the  
second trip to Beijing"

Lee, Goon-seon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reality of companionship centering the details that Kwan-am Hong Gyung-mo kept company with Chinese personages in second trip to Beijing and examined the results of second trip to Beijing. At a glance, companionship with Chinese literary men of the later of Chosun seems to be demanded by side of Chosun, one-sidedly. But As a result of careful examination of the materials about his second trip to Beijing, we can find that there were some chinese persons who devoted themselves to keep company with Chosun's personages too. Hong Gyung-mo associated with Gi Soo-you, Jin Deng-ji and Yuk Gyung-yi in his first trip to Beijing and associated with Sol Bang-ul, Tak Byung-neam, Tak byung-um, Jin Gen-gwang and Sup Ji-sun in his second trip to Beijing. They usually kept a relation of companionship exchanging a poetry, prose and present. Especially, He kept the longest relation of companionship with Gi Soo-you who had met in his first trip to Beijing. Because that was not only the ties formed in his first trip to Beijing but also the companionship of three generations linked from Yigye and Gi Hyo-ram at the back of it.

Hong Gyung-mo recorded every things which he associated with. In

「Ue-Sa-hu-Pyun」 and 「Ue-Sa-Sok-Pyun」, the letters which he sent and received were recorde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thinking of Kwan-am regarding records as important was reflected.

The first reason that Hong Gyung-mo devoted himself into the companionship with chinese personages was the preachment on classics of grandfather Yigye. Yigye affected Kwan-am deeply and Kwan-am regarded the succession to him as important, as much a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life of Kwan-am was the preachment of Yigye itself.

The second reason was in order to inform Yigye and his family to chinese literary world. We can be known from his telling the relation between Yigye and Gi hyo-ram to people he met and giving the collection of Yigye. Besides, He introduced the collection of his uncle Hong Hee-jun to chinese literary world.

The third reason was in order to inform himself to chinese literary world. we can recognize it from his efforts to give his own collections of poetry and prose to people he met and to take a preface from them.

The preface of chinese personages seemed to be prided by being introduced to Chosun. That was why Chosun's personages tried to receive the prefaces of their prose collections from chinese literary men.



Kwan-am, Hong Gyung-mo, Gi Soo-you, Sol Bang-ul, Tak Byung-neam, Tak Byung-Um, Jin Gen-gwang, Sup Ji-sun, a mental association of three generations, a companionship of generations, a goodness of generations

## 冠巖 洪敬謨의 中國文人과의 交遊와 그 樣相

- 2차 연행을 중심으로 -

이 군 선

본고는 관암 홍경모가 2차 연행에서 중국인사들과 교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유의 실상을 살펴보고 연행의 성과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조선 후기의 중국문인과의 교유가 조선 측에서 일방적으로 갈구한 듯이 보이지만 연행의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할 때 중국측에도 조선인사와 교류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경모는 1차 연행에서 기수유, 진등지, 육경이와 교유하고 2차 연행에서 솔방울, 탁병념, 탁병음, 진근광, 섭지선 등과 교유를 한다. 이들은 주로 시문과 예물을 주고받으며 교유관계를 이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1차 연행에서 만난 기수유가 가장 오래 교유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는 1차 연행에서 맺은 인연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 이계와 기효람에서 이어지는 삼대신교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홍경모는 이들과 교유한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외사후편』과 『외사속편』에 오고 간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기록을 중시하는 관암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경모가 중국인사와의 교유에 열정을 기울인 이유는 첫째, 조부인 이계의 조술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계는 관암에게 있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관암의 삶이 이계의 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계의 뒤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이계와 자신의 가문을 중국 문단에 알리기 위함이다. 관암은 만나는 인물들에게 이계와 기효람의 관계를 말하고 이계집을 건네주는 데

에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숙부인 홍희준의 문집도 함께 중국 문단에 소개하고 있다.

셋째, 자신을 중국 문단에 알리려는 의도에서이다. 이는 자신의 시문집을 중국에서 만난 인물들에게 주며 서문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중국 인사들의 서문은 조선에 소개되어 자랑거리가 되었던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조선 인사들은 중국 문인들에게 자신의 문집 서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관암, 홍경모, 기수유, 솔방울, 탁병념, 탁병음, 진근광, 섭지선, 삼세신교, 세교, 세호